

[붙임2]

<인권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> 강의 계획서 및 강사 소개

프로그램명	2024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<인권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>		
주최·주관	부산광역시인권센터		
목표	- 인권, 인권감수성이 무엇인지를 안다. - 미디어(동화, 그림책, 드라마, 영화) 속 한 장면을 통해 현실과 괴리된 미디어 속 사람 이야기를 찾아보고 인권감수성을 높여본다.		
분류	(성인)		
일시	2024. 7. 19.(금) 10:00~12:00	대상	성인 50명
상세내용	<p>제목 : 미디어 속 사람 부제 : 미디어 속 사람을 인권감수성으로 만나기</p> <p>① 도입 # [활동] 눈떠보니 ooo - 다양한 상황과 사람이 적힌 카드를 랜덤으로 선택하고 열 가지 제시상황을 모두 할 수 있는지 해아려보기 - 우리가 누리는 특권(사회적 조건이 유리해서 누리는 것) 찾아보기</p> <p>② 전개 # [활동] 아무개씨 테스트 ㉠ 아무개 씨는 서울에 삽니다 - 표준어(서울말) vs 사투리(지방어) : 대중문화 속 서울말과 사투리 분석 - 서울(특별시) vs 부산(보통시) : 지방사람이라서 들었던 말, 지역에 대한 편견 ㉡ 아무개 씨는 젊은 성인 입니다 - 아동 : 미디어 속 아동(귀엽고, 의젓함) vs 현실의 아동(노키즈 존, 민식이법 놀이) - 노인 : 미디어 속 노인(여유롭고 지혜로운, 착한치매) vs 현실의 노인(가난, 질병) ㉢ 아무개 씨는 비장애인입니다 - "뷰티인사이드" 등장인물 123명 중 장애인은 없다, 장애인을 투명하게 묘사함. - "선재 업고 튀어" 장애를 바라보는 납작한 시선</p> <p>③ 마무리 - 미디어 속 사람(비주류, 사회적 약자, 소수자)에 대해 남다른 눈으로 발견해보는 것이 인권감수성임을 깨닫고 현실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의 몫을 강조하며 마무리 함.</p>		
강사	이름	김수진	